

## 제주도 연구의 필요성

— 문화인류학적 관점에서 —

조 해 정 \*

제주도는 전통적으로 육지와는 판이한 생업구조를 발달시켜왔으며 현재도 여전히 그 특이한 생태학적 조건에 의해 많은 분야에 걸쳐—언어, 종교, 남/여성의 생활상 등— 독자성과 특수성을 보여주고 있다. 文化인류학자로서, 그리고 여성연구를 집중적으로 해 온 필자에게 제주도는 특히 그 여성활동과 이에 따른 남·여성의 세계관과 기질차이 때문에 늘 큰 관심이 되어 왔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여성이 남성 못지않게 경제생산에 직접적으로, 그리고 적극 참여하는 사회는 현대 지구상을 둘러보면 그리 흔치 않다. 제주도는 그 특수한 생태학적 환경—특히 집약농업이 불가능한 토양과 풍부한 수산자원—에 의거하여 옛부터 해녀文化를 낳았으며 자주적이고 활기있는 여성들의 독자적인 생활태도는 남여간의 가장 자연스러운, 그래서 바람직한

조화관계를 추구하는 세계의 여성관계 사회과학자들에게 매우 귀중한 학문적 자료를 제공하리라고 기대된다.

여성관계연구에서의 가치뿐 아니라 제주도도 우리나라 文化와 민족성을 연구하는 데 꼭 필요한 비교적 관점을 제공할 것이다. 역사적으로 행정적 간섭을 받아 왔으며 같은 언어로서 의사소통할 수 있었으나 지리적 조건에 의해 제주도는 그 나름의 文化를 발전, 보존해 올 수 있었다. 육지문화에서 절대적이라고 믿어오던 많은 가치와 관습들이 어떻게 제주에서는 변형수용되거나 거부되었는지, 왜 그런지에 대한 과학적 분석을 통하여 우리는 구태어 외국에 나가지 않고서도 많은 새로운 사실들을 알게 될 것이며 스스로의 위치를 더 잘 이해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제주도 연구는 제주도민에 의해, 제주도민을 위해 행해져야 하며 이것은 곧 세계가 한 마을로 되어가는 현대사회에서 각 사회구성원이 해야할 임무이기도 하다. 특히 상업자본의 침투로 급격히 변화해 가는 제주文化를 외래의 힘에 떠라 변하게 맡기기만 할 것인지, 제주도민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 적극적으로 그들의 나은 미래를 위한 文化를 형성해 갈 것인지는 자신들의 고유의 전통文化를 바로 이해하고 주인으로서 역사의식을 갖는데 있다. 이제껏 평화롭고 자주적이며 근면한 文化를 지켜온 제주도가 앞으로도 그러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나는 제주도 연구가 시급히, 그리고 성공적으로 많은 학자와 학생들의 노력에 의해 행해지기 바란다. (연세대 사회학과 조교수)